

2018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국 어	3학년	과목코드	01
시험시간	45분		7월 4일 1교시		
선택형	서술형	계			
24문항 90점	2문항 10점	26문항 100점			

※[1~4, 서술형1]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海原)을 향하여 흔들리는
영원한 노스탈자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꽃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1. 시어와 시구에 담긴 의미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① 푸른 해원: 이상과 동경의 세계를 의미한다.
② 순정 : 깃발의 순수한 열정을 뜻한다.
③ 이념의 꽃대: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를 뜻한다.
④ 슬프고 애달픈 마음: 근원적 한계에서 느끼는 슬픔이다.
⑤ 공중: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해방의 공간이다.

2.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①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노래한 시이다.
② 화자가 등장해 주제를 직접 전달하고 있다.
③ ‘깃발’을 제재로 한 자유시이다.
④ 깃발의 상징적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⑤ 이상향에 대한 동경과 좌절의 대립 구조가 나타난다.

3. 이 시에 사용된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4점)

①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장 구조를 짝을 맞추어 늘어놓는 표현법이다.
② ‘~처럼, ~같이’와 같은 말을 사용해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에 직접 비유하는 방법이다.
③ 대개 ‘~은 ~이다’의 형태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동일시하여 대상을 묘사하는 표현법이다.
④ 감탄사를 사용하여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표현법이다.
⑤ 정상적인 언어 배열 순서를 바꾸어 놓음으로써 강한 인상을 주려는 표현법이다.

4. ㉠에 사용된 표현 방법이 쓰인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2개) (4점)

①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②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어 오오.
③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④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⑤ 눈 감으면 바다직박구리 우는 소리가 들려오네

[서술형 1] 1) ㉠에 사용된 표현법을 쓰고, 2) <보기>에서 그 표현법이 쓰인 시구를 찾아 쓰시오(5점)

<보 기>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에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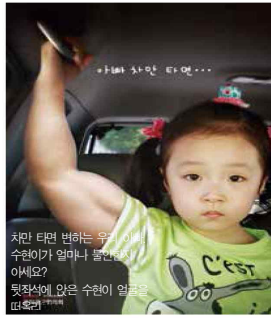
화면	음향
	노래 아이) 밟지 말고 아이들)밟으세요!
	아이) 걸지 말고 아이들)걸으세요!
	내레이션 실천이 늘어날 수록 CO2는 줄 어듭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됩니다.

(다)



(라)



(마)



(바)



5.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는 영상광고이며, (나) 인쇄광고이다.
- ② (가)는 공익광고이며, (나)는 상업 광고이다.
- ③ (가)와 (나)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④ (가)와 (나)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자고 설득하고 있다.
- ⑤ (가)는 음성, 내레이션, (나)는 문자, 노래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6. (가)와 (나)에 사용된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는 물을 휴지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 ② (가)는 ‘끊어’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물 절약을 강조하였다.
- ③ (나)는 행동은 같으나 언어가 다른 표현을 짝지어 제시하였다.
- ④ (나)는 내레이션을 통해 의도를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었다.
- ⑤ (나)는 ‘~하지 말고 ~세요’라는 표현을 반복하였다.

7. (나)~(바)에 사용된 설득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4점)

- ① (나)는 유머를 활용하여 광고 내용에 호감이 가도록 한다.
- ② (다)는 객관적으로 설명하여 대중이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한다.
- ③ (라)는 소비자가 좋아하는 인물을 등장시켜 그들의 생활방식을 따라 하고 싶게 만든다.
- ④ (마)는 공포, 불안 등 위협적인 내용을 강조한다.
- ⑤ (바)는 노래를 통해 내용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한다.

8.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을 설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
- ②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 ③ 예의를 갖추어 말한다.
- ④ 독점하여 이야기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인다.
- 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 말한다.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가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하는 김 침지에게는 오래간만에 도둑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안에 (거기도 문밖은 아니지만) 들어간답시는 앞집 마마님을 전차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롯으로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를 동광학교(東光學校)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나)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밥도 굵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첩 썬 일이 없다. 구태여 쓰려면 못 쓸 바도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자기의 신조(信條)에 어디까지 충실하였다.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되 반듯이 누워 가지고 일어나기는새려 모로도 못 눕는 것을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 병이 이토록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그때도 김 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되와 십 전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 침지의 말에 의지하면 그 오라질 년이 천방지축으로 냄비에 대고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달지 않아 채 익지도 않은 것을 그 오라질 년이 숟가락은 고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은 혹이 불거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 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땅긴다, 배가 켕긴다고 눈을 홑뜨고 지랄병을 하였다. 그때, 김 침지는 열화와 같이 성을 내며,
“에이 오라질 년,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루 뜨지 못해!” 하고 김 침지는 앓는 이의 뺨을 한 번 후려갈겼다. 홑 뜯은 눈은 조금 바루어졌건만 이슬이 맺히었다. ㉣김 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한 듯하였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됩니다.

이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이런 오라질 년!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쳐먹고 지랄을 하게.” 라고 ㉔야단을 쳐 보았건만, 못 사 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다) 그 학생을 태우고 나선 김 침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거뿔하였다. 달음질을 한다니보다 거의 나는 듯하였다. 바퀴도 어떻게 속히 도는지 구른다느니보다 마치 얼음을 지쳐 나가는 스케이트 모양으로 미끄러져 가는 듯하였다. 언 땅에 비가 내려 미끄럽기도 하였지만.

㉕이우고 끄는 이의 다리는 무거워졌다. 자기 집 가까이 다다른 까닭이다. 새삼스러운 염려가 그의 가슴을 눌렀다.

㉖“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런 말이 잉잉 그의 귀에 울렸다. 그리고 병자의 움썹 들어간 눈이 원망하는 듯이 자기를 노리는 듯하였다. 그러자 엉영하고 우는 개똥이의 곡성을 들은 듯싶다. 딸꾹딸꾹하고 숨 모으는 소리도 나는 듯싶다…….

“왜 이러우? 기차 놓치겠구먼.” 하고 탄 이의 초조한 부르짖음이 간신히 그의 귀에 들려왔다. 언뜻 깨달으니 김 침지는 인력거 채를 쥔 채 길 한복판에 엉겨주춤 멈춰 있지 않은가.

“에에.” 하고 김 침지는 또다시 달음질하였다. 집이 차차 멀어 갈수록 김 침지의 걸음에는 다시금 신이 나기 시작하였다. 다리를 재게 놀려야만 쉴 새 없이 자기의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을 듯이.

(라) 방 안에 들어서며 설렁탕을 한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㉗주정꾼은 목청을 있는 대로 다 내어 호통을 쳤다.

“이런 오라질 년, 주야장천(晝夜長川)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남편이 와도 일어나지를 못해!” 라고 소리와 함께 발길로 누운 이의 다리를 밟시웠다. 그러나 발길에 차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뭇등걸과 같은 느낌이 있었다. 이때에 짹짹 소리가 웅아 소리로 변하였다.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빼어 놓고 운다. 운대도 온 얼굴을 찡그려 붙여서 운다는 표정을 할 뿐이다. 웅아 소리도 입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뱃속에서 나는 듯하였다. 울다가 목도 잠겼고 또 울 기운조차 시진한 것 같다. 발로 차도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

들어 그야말로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꺼들어 흔들며,
“이년아, 말을 해, 말을! 입이 붙었어? 이 오라질 년!”
“으응, 이것 봐, 아무 말이 없네.”
“이년아, 죽었단 말이나, 왜 말이 없어?”
“으응,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 버이.”
이러다가 누운 이의 흰창이 검은창을 덮은, 위로 치뜬 눈을 알아보자마자,
“이 눈깔!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느냐, 응?”
하는 말끝엔 목이 메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의 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뺨뺨한 얼굴을 어롱어롱 적신다. 문득 김 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테 비비대며 중얼거렸다.
“㉘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㉙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9.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① 일제 강점기의 시대상을 드러냈다.
- ② 도시 빈민층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 냈다.
- ③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을 그려냈다.
- ④ 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제시하였다.
- ⑤ 비속어를 사용하여 하층민의 삶을 생생하게 드러냈다

10. ㉚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정답2개)(4점)

- ① 시대적 배경을 드러낸다.
- ② 비극적 결말을 암시한다.
- ③ 등장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 ④ 음산하고 불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⑤ 인력거를 타는 손님이 없을 것임을 예견한다.

11. ㉛~㉞을 통해 알 수 있는 김침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① ㉛ : 힘들게 살아가는 도시 하층민이다.
- ② ㉜ : 가난에 오랫동안 허덕였다.
- ③ ㉝ :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다.
- ④ ㉞ : 겉으로는 쌀쌀하나 속정이 깊다.
- ⑤ ㉞ : 소심하고 소극적이다.

※ 다음 페이지에 계속 됩니다.

1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4점)

- ① ㉠ : 집에서 멀어질수록 아내에 대한 걱정 때문에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다.
- ② ㉡ : 아내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암시한다.
- ③ ㉢ : 아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한 과장된 행동이다.
- ④ ㉣ : 결말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소재이다.
- ⑤ ㉣ : 제목과는 반대되는 결말로 비극성을 심화시킨다.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방세도 들어오고 오빠가 월급도 많이 받아 와 엄마는 샴바느질을 덜 했다. 오빠 몰래 꼭 엄마의 숨씨를 원하는 사람한테만 해 주는 것 같았다. 오빠는 효성이 지극해서 엄마가 남의 바느질을 하는 것만 보면 슬픈 얼굴로 화를 냈다. (중략) 숙부네 가게는 큰 **얼음 창고**가 있었고 **그때만 해도 아주 귀한 전화**도 가지고 있었다. 겨울에는 솟도 팔았지만 그 상가에선 ‘얼음 가게’로 통했다. (중략) 그런 사람들은 숙부로부터 기나긴 성공담을 들어야 했다. 무작정 상경해서 일본인 생선 도매상 얼음 창고 위 **다락방**에서 겨울을 나면서 고생한 이야기였다.

(나) 제 2차 세계 대전을 맞은 것도 **괴불 마당 집**에서였다. 일본 사람들은 ‘**대동아 전쟁**’이라고 했다. 나는 그게 무언지도 몰랐지만 신이 났다. 우리는 그전부터 이미 호전적으로 길들여져 있었다. (중략) 아침에 운동장에서 조회를 할 때마다 (A)**황국 신민의 맹세**를 하고 나서 군가 행진곡에 발을 맞춰 교실에 들어갈 때면 괜히 피가 뜨거워지곤 했는데 그건 뭔가를 무찌르러 달려 나가야 할 것 같은 호전적인 정열이었다.

(다) 내 이름을 일본말로 부르면 ‘보쿠엔쇼’였다. 당시 비상시국이 되면서 매일 실시하는 **방공 연습**을 일본말로 하면 ‘보쿠엔슈’가 되었다. 발음이 비슷해서 방공 연습 때마다 아이들이 나를 놀렸다. 창씨개명을 하면 한자를 음으로 읽지 않고 뜻으로 읽게 되는데, ‘하나코’니 ‘하루에’니 하는 여자 이름이 그렇게 듣기 좋을 수가 없었다.

(라) 학부형회가 있으면 엄마는 꼭 참석을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일본인이고 학부형이 일본말을 모르는 경우에는 반장을 불러서 통역을 시켰다. 일본인 선생님 앞에 풀을 세게 먹인 뽕뽕한 무명옷을 뻗쳐 입고, 쪽에 비너를 꽂은 머릴 곳곳이 세우고, 꼬마 통역에 대한 배려라곤 조금도 없이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엄숙하게 하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는 일은 마치 고문처럼 괴로웠다.

(마) 오일장을 치르는 동안 당시의 풍습에 따라 잠시도 곡이 그치지 않았지만 호상답게 집안 분위기가 침울하지는 않았다. (중략) 상여가 나가는 날은 선영이가 감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장례 행렬이 집 앞에서 산까지 이어졌다. 화려한 상여도 그렇고 서울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호사스러운 광경이었다. 당시의 풍습이 그러했는지, 우리 집안만의 가풍이었는지 안상제들은 상여를 부여잡고 서럽게 울기만 하다가 슬그머니 물러나고 장지까지 따라가지는 않았다.

1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 ① 숙부는 직업은 면서기로, 얼음 가게도 같이 운영했다.
- ② ‘나’의 가족들은 괴불 마당 집에서 제 1차 세계대전을 맞았다.
- ③ ‘나’의 담임선생님은 조선 사람이었다.
- ④ ‘나’는 엄마가 학교에 오시는 것을 싫어했다.
- ⑤ ‘나’는 군가 행진곡에 발을 맞춰 교실에 들어갈 때마다 화가 났다.

14. 위 글을 읽고 등장인물에 대하여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4점)

- ① 지영: 엄마가 샴바느질을 하는 것을 보고 오빠가 슬픈 얼굴로 화를 내는 것으로 보아 오빠는 효심이 매우 깊어
- ② 연지: 숙부는 자신의 기나긴 성공담을 들려주는 것으로 보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해
- ③ 윤정: 일본식 이름이 예뻐서 창씨개명을 하고 싶다니. ‘나’는 정말 철이 없는 것 같아.
- ④ 보영: 엄마가 매번 학부형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엄마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듯해.
- ⑤ 민지: 일본인 선생님 앞에서 꾹꾹하게 한글을 사용하다니. 엄마의 애국심은 대단해.

15. 위 글의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말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4점)

- <보 기> —
- ㉠. 그때만 해도 아주 귀한 전화
 - ㉡. 다락방
 - ㉢. 방공연습
 - ㉣. 괴불 마당 집
 - ㉤. 대동아 전쟁
 - ㉥. 얼음 창고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 다음 페이지에 계속 됩니다.

16. <보기>는 (A)의 내용이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점)

-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臣民)입니다.
-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 우리들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 ① 위 글의 시대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이다.
- ② 일본인처럼 천황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세뇌시키기 위해 실시했던 정책이다.
- ③ 조선인으로서의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 ④ 일본의 식민지로서 조선인과 일본인이 다르지 않음을 인식시키고자 한 교육이다.
- ⑤ 학교 조퇴시간을 활용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위우도록 강요하였다.

17. (마)를 읽고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① 해인: 요즘에는 보통 3일장을 많이 하는데 저 당시에는 5일장을 치르는구나!
- ② 영선: 분위기가 침울하지 않은 걸 보니 저 당시에는 고인을 위해 조용하게 장례를 치러야 했나봐.
- ③ 한별: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지만 저 당시에는 대부분 집에서 치렀어.
- ④ 하진: 저 당시에는 직접 상여를 메고 장지까지 걸어갔구나!
- ⑤ 채은: 안상제들은 장지까지 따라가지 않는 걸 보니 저 당시에는 남성중심의 사회임을 알 수 있어.

※[18~19, 서술형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골서 어렸을 때 잠깐 배운 한글이었으니 잊어버릴 법도 했다.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은 것은 한글을 써먹을 기회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기회가 돌아오는 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다. 그 기회란 시골에 계신 조부모님께 문안 편지를 쓰는 일이었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마음으로부터 좋아했다. 나에게 고향과 조부모님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덩어리였다. 만약 고향에 그분들이 안 계신다면 1년에 두 차례의 귀향이 그렇게 가슴 설렘 까닭이 없었다.

(나) 그러나 자랑 끝에 불붙는다고, 그 후 얼마 안 돼 쌀이 배급제가 되더니 운동화와 고무신까지 배급제가 되었다. 쌀은 식구에 따라 배급 통장을 만들어 주었지만 고무신은 동네 애국반을 통해 한 반에 한두 켤레씩 나오면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했다. (중략) 내가 운수가

좋아 그런 선생님을 만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한 반에 창씨 안 한 애가 서너 명 밖에 안 남았을 때도 그런 애들을 선생님이 특별히 구박하거나 은근히 압박을 가한 것 같은 기억은 전혀 없다. 불령선인으로 지목된 특별한 집안이라면 모를까, 우리네 같은 보통 집안 사정은 대개 비슷했으리라고 생각한다.

(다) 오빠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애통이 지나쳐 한때 건강을 해쳐 엄마의 애간장을 태웠다고 한다. 내가 세 살 때였으므로 내 기억 속에 아버지의 죽음은 없다. 이번에도 오빠가 망상주였으므로 오빠는 굴건제복을 했다. (중략) “특하면 울기 잘하는 년이 어찌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리냐, 안 흘리길? 기르던 강아지도 그만큼 귀애했으면 며칠 끼니라도 굶겠다. 그저 딸년이고 손녀고 계집애 기르는 일은 말짱 헛일이라니까.” 그때부터 나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정신이 가물가물하고 온몸이 탈진할 때까지 몸부림을 치며 통곡을 했다.

(라) 중풍이 들기 전에도 할아버지는 그 줄을 가볍게 잡고 오르내리셨지만 1차 중풍 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뒷간이나 마당출입이 가능했던 시기엔 그 줄에 매달려 다리를 부들부들 떠는 것을 몇 번이나 본 적이 있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줄은 거기 늘어져 있었고 나는 방학에 귀향할 적마다 멀리서도 텅빈 사랑채에 늘어져있는 그 줄만 보면 가슴이 찢어질 듯 진한 아픔이 밀려왔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달려가듯이 제일 먼저 그 줄을 향해 달려가 어루만져 보곤 했다.

(마) 그러나 엄마의 그런 반일 감정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됐다.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상경하자마자 엄마는 오빠와 숙부에게 우리도 창씨개명을 하자고 재촉했다. 그건 나도 은근히 바라는 바였고 또 으레 그럴 수 있려니 했다. 놀랍게도 오빠가 반대를 하고 나섰다. 지금까지도 잘 견뎌 왔는데 좀 더 기다려 보자는 것이었다.

18. 단어 뜻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① 애국반: 대한 광복군 단체의 말단 조직. 국민들의 독립 운동을 주도함.
- ② 불령선인: 일본의 정책에 불만을 품고 따르지 않는 조선인
- ③ 굴건제복: 상주가 머리에 쓰고 입는, 삼베로 만든 두건과 옷
- ④ 애통: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
- ⑤ 애간장: 초조한 마음속.

※ 다음 페이지에 계속 됩니다.

19. 위 글에 대한 ‘나’의 인터뷰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 2개),(4점)

— <보 기> —

‘나’: ①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매우 좋아했어요. 고향과 조부모님이 한 덩어리로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조부모님께 ②문안편지 쓰는 것도 행복했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렸던 저는 순간 무서웠나 봐요.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울지 않는다고 심하게 나무라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말에 ③그제서야 할아버지의 죽음이 실감났고, 큰 슬픔이 몰려와 눈물을 쏟았어요. 분명 엄마의 말씀에 반박할 수도 있었지만 ④저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눈물부터 나오더군요. 제가 방학 때마다 고향에 내려가면 제일 먼저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쓰시던 줄을 만져요. 그 줄을 만지고 있다 보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저에게 ⑤그 줄은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가져다주는 존재였습니다.

[서술형2]

(마)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5점)

- 1) 오빠의 ‘좀 더 기다려보자’ 라는 말은 무엇을 기다리자는 말인지 쓰시오.(2점)
- 2) 엄마가 창씨개명에 찬성하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3점)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 마을에 부자가 있었는데, 가족들과 서로 의논하였다.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언제나 존경을 받지만, 우리는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언제나 하대를 받고 천하거든. 감히 말을 탈 수도 없고, 양반만 보면 저절로 기가 죽어서 굶질거리며 엉금엉금 기어가서 뜰 밑에서 절해야 하지. (중략) 참으로 그 양반이라는 자리도 지닐 수 없는 형편이 되었지.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사서 가져야겠어.

(나) 부자는 곧 양반의 집을 찾아가서 환자를 대신 갚겠다고 청하였다. 양반은 크게 기뻐하면서 허락하였다. 부자는 곧바로 곡식을 관가에 보내어 갚았다. 군수는 매우 놀라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직접 양반을 찾아가 위로하면서 환자를 갚은 사정을 물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양반은 병거지를 쓰고 베잠방이를 입은 채 길바닥에 엎드려 ‘췌네’라고 칭하면서 감히 올려다보지를 못하였다.

(다) 날씨가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며, 밥을 먹을 때도 팬상투 꼴로 앉지 말아야 한다. 식사하면서 국물부터 먼저 마셔 버리지 말며, 마시더라도 훌쩍거리는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 젓가락을 내려놓을 때 밥상을 쥘어 소리 내지 말며, 생과를 씹지 말아야 한다.

(라) 이 세상에서 양반보다 더 큰 이익을 주는 것은 없다. 그들은 농사짓지도 않고 장사하지도 않는다. (중략) 방 안에서 귀고리로 기생이나 놀리고, 뜰 앞에 곡식을 쌓아 학을 기른다. (비록 그렇게 못해서) 궁한 선비로 시골에 살더라도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 이웃집 소를 몰아다가 내 밭을 먼저 갈고 동네 농민을 잡아내어 내 밭을 김매게 하더라도, 어느 놈이 감히 나를 괘시하라. 네놈의 코에 잣물을 따르고 상투를 잡고 흔들며 수염을 뽑더라도 원망조차 못하리라.

(마) “그만두시오. 제발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합니다그려. ㉠당신네가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이시오?” 하고는 머리채를 흔들면서 달아났다. 그 뒤부터 그는 죽을 때까지 ‘양반이란 소리를 입에 담지도 않았다.

20. <보기>는 양반과 아내의 대화이다.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정답 2개), (4점)

— <보 기> —

양반: 빌린 쌀을 갚지 못 하니 이리다 옥에 갇히겠소. 이를 어찌한단 말이오. 또 앞으로는 무얼 먹고 살아야 한단 말이오. 눈물이 앞을 가리는 구나.
아내: 쫓쫓. 양반, 양반 하더니 한 톨어치도 못 되는구려.

- ① 양반을 불쌍하게 여긴 군수가 양반의 빚을 갚아주는 계기가 되었다.
- ② 아내는 양반답지 못하게 울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창피하여 화가 났다.
- ③ 작가 박지원은 아내의 입을 통해 양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였다.
- ④ 아내는 양반의 신분을 사려는 부자의 제안을 거절한 남편을 비판하고 있다.
- ⑤ 양반이지만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의 모습을 아내가 비판하고 있다.

※ 다음 페이지에 계속 됩니다.

21. (가)와 (나)를 읽고 알 수 있는 당시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① 평민은 양반들로부터 천대를 받았다.
- ② 신분에 따라 입는 옷이 달랐다
- ③ 신분은 낮지만 돈이 많으면 높은 사람 앞에서 몇몇할 수 있다.
- ④ 신분에 따라 사용하는 말이 달랐다.
- ⑤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고 팔 수 있었다.

22.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부자의 요구로 만들어진 2차 양반 매매 증서이다.
- ② 양반은 가장으로서 살림에 보탬이 되는 농사나 장사 등을 즐겨했다.
- ③ 양반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양반의 지나친 특권을 비판하고 있다.
- ④ 평민에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양반의 모습을 담고 있다.
- ⑤ 양반 신분을 앞세워 평민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이기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

23.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양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 ② 양반 매매 증서의 내용을 보니, 양반이 마치 도둑놈처럼 느껴졌다는 의미이다.
- ③ 부자가 양반이 되기를 포기한 이유이다.
- ④ 가난한 양반이 되면 도둑질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⑤ 작가 박지원의 창작 의도를 알 수 있다.

24. 위 글을 읽고 두 학생이 <보기>의 대화를 나누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면? (4점)

— <보 기> —

한나: 인우야, 내 생각엔 이 소설의 핵심은 양반 매매 증서인 것 같아. 1차 양반 매매 증서는 무슨 내용이었더라?

인우: 양반이 지켜야 할 생활태도와 도리를 나열하면서 양반의 ㉠을(를) 비판하고 있지.

한나: 맞아 맞아. 작가 박지원은 <양반전>을 통해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풍자하려고 했으니까.

인우: 응. 풍자는 인물의 부정적인 모습이나 사회의 문제점을 ㉡으로 비판하는 표현 방식인데, 특히 이 소설에서는 양반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나타내어 웃음을 유발했지?

한나: 맞아. 그걸 ㉢라고 배웠던 것 같아!

- | | ㉠ | ㉡ | ㉢ |
|---|-------|-----|-----|
| ① | 허례허식 | 직접적 | 극대화 |
| ② | 특권 의식 | 직접적 | 극대화 |
| ③ | 허례허식 | 직접적 | 희화화 |
| ④ | 특권 의식 | 간접적 | 희화화 |
| ⑤ | 허례허식 | 간접적 | 희화화 |

끝.